

「洪景來實記」研究

— 義賊 洪景來의 活動을 中心으로 —

李 昌 祐*

目 次

- I. 序 論
- II. 義賊小說로서의 「洪景來實記」
- III. 作品의 意義와 限界
- IV. 結 論

I. 序 論

朝鮮後期에 들어 본격적인 小說의 時代가 열리면서 문학의 흐름은 전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作家의 多層化와 더불어 작품의 素材의 傾向이 社會에 대한 問題쪽으로 확대되고, 主題意識 또한 多變化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소설뿐만이 아닌 문학 전반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서정성이 강한 詩歌樣式보다는 敘事樣式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욕망을 작품에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압축성보다 산문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작가 의식에 따른 소산

* 同門. 文學碩士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고소설의 흐름은 사회적 문제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작품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古小說, 특히 社會小說의 경우 서두 부분에서는 制度에 대한 反抗이나 革命과 같은 一種의 問題意識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既成的 諸前提의 受諾에 도달하고 마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義賊小說의 경우는 다르다. 의적소설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義賊은 지배층에 의해서는 한낱 무법자로 간주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영웅, 전사, 복수자, 정의의 수호자 내지 해방의 지도자로까지 평가받는 인물군¹⁾이다. 이들 의적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출현하였고,²⁾ 그 활동상은 歷史記錄 이외에도 小說이나 說話, 漢文短篇, 民謠, 敘事詩歌 등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³⁾ 특히, 假空 人物보다 實存 人物을 대상으로 한 의적소설에서 우리는 당대 사회의 부패상과 아울러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욕망, 현실인식 등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데, 한국 고소설의 경우 「洪吉童傳」, 「田禹治傳」, 「洪景來實記」 등 많은 작품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洪景來實記」를 대상으로 하여⁴⁾ 작품에 나타난 義賊

- 1) E. J. Hobsbawm, 「義賊의 社會史」(黃義坊 譯, 한길사, 1978), pp.9~11.
- 2) E. J. Hobsbawm은 전세계적 보편현상으로서의 의적을 로빈후드형의 신사강도, 하이더크, 복수자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前掲書). 한편, 조선시대에 출현하였던 의적의 활동상과 그 의미에 관련된 연구 역시 최근에 이르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저들을 참고하고, 본고에서 더 이상의 상술은 피하기로 하겠다.
柳永博, 「朝鮮王朝의 弭盜政策」, 「鄕土서술」, 23(서울시, 1964)
鄭爽軀, 「朝鮮後期 社會變動 研究」(一潮閣, 1984)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覺」(創作과 批評社, 1984)
- 3) 朝鮮時代 義賊文學에 대한 개괄적 논의는 金奭培(「義賊系 漢文短篇의 性格」, 「文學과 言語」 6(文學과 言語研究會, 1985)), 李蕙淳 外(「우리 소설의 義賊 모티프」, 「문학과 비평」 2호(탐출판사, 1987 여름)) 등을 참조하기 바람.
- 4) 「洪景來의 亂」을 소설화한 작품으로는 漢文短篇 「洪景來傳」(筆寫本, 作者·年代 未詳), 「辛未錄」(京板本, 國文, 作者 未詳, 辛酉(1861?)二月日紅樹洞

洪景來의 체모습과 아울러, 義賊小說·歷史小說로서의 「洪景來實記」가 지니는 文學史的 意義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Ⅱ. 義賊小說로서의 「洪景來實記」

「洪景來實記」는 1811~1812년간에 조선왕조의 제반 부패상에 항거하면서 洪景來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義賊活動을 그 소재로 취하고 있다. 본 작품은 이와같은 소재적 차원의 방대성에 걸맞게 분량상으로도 長篇小說의 形式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章回小說의 성격을 띄고 있다. 우선, 「序」에서 작품의 찬술 동기를 간단히 밝힌 다음, 本篇으로 들어가는 홍경래의 거사에서부터 실패에 이르는 사건을 상·하권 총17회로 나누어 1~10회까지를 上卷에, 11~17회까지를 下卷에 배치시키고 있다.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따라서, 작품의 전모를 고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일단 배제시키고 내용적 차원에서 논의될 진행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의 테마인 '義賊으로서의 洪景來'는 작품의 형식성보다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소재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作品과 歷史의 關聯性 - 「洪景來實記」가 얼마나 歷史的 事實에 充實하고 있으며, 史實이 어느 정도 變形·歪曲되어 표현되고 있는가 등등 - 문제가 제기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작품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외적인 사실은 단편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홍경래의 의적활동 전모를 동기, 활동양상, 결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洪景來實記」의 이러한 모습이 前代 古小說 또는 義賊小說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며 그 의미가 무엇

新板), 「洪景來實記」(活字本, 國文, 南岳主人 撰, 1917年 7月 10日) 등 세 편이 현존한다. 본고에서는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설로서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洪景來實記」를 텍스트로 취했다.

인지를 구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社會的 自我的 覺醒

작품 속에서 홍경래는 일찍부터 조선사회의 곳곳에 산재하고 있던 부패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의식을 가졌던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남근 | 세상에 남에 맞당히 창심을 건지고 절대한 수업을 일우워 일흠을
후세에 전하고 공훈을 청수에 빛낼지라 잊지 밤버래로 구구히 일심을 허도
후리오⁵⁾

물론 이와 같은 의식은 조선시대의 양반이면 다 가졌음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대 성리학적인 사고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정사를 펴는 것을 社會에 대한 一種의 義務라고까지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홍경래가 당시 사회의 제반 부패상에 대해 일찌기 감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성급한 판단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때 이러한 평가가 결코 우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선세가 대몽의 날개처럼 쾌히 썰치든 일은 이미 선현스고도 자라
목아지된지 이미 무늬년이라……취코만흔 작은 판국에 궁병이처럼 몸을
거리면서 그 속에 가시로 지은 문이 점점이 서고 바늘로 모은 섬들이 층층
히 벌너 잇서 아모리 거룩흔 인물과 큰 경륜이 잇슬지라도 우스운 계결과
되지 못한 방법에 씌씩흠을 잊지 못하게 되었스니 하늘이 우리를 잃어매심
이 또 한심하도다 사툼이 생명을 하늘의 밧조음은 한가지어늘 세상에 썩러
지면서 반상의 문벌이 잇기도 이미 리치가 아니려든 허물며 문무의 직분으
로 벼슬에 귀천이 잇고 디방의 남북으로 칙성에 친소가 잇서……⁶⁾

5) 仁川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古小說全集」 17(同 研究所, 1984), 「洪景來實記」(上), pp.1-2.(이하 작품 인용은 「洪景來實記」로 줄인다.)

6) 「洪景來實記」(上), p.2.

『洪景來實記』研究

조선왕조가 건국초기에 주창했던 개혁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들어 가고, 급기야 庶孽禁錮, 文武班常, 地域差別 등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려시대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부패된 상황이 야기된다. 여기에다가 壬丙兩亂을 겪으면서 나타난 심각한 지배층의 분열과 대립은 상대적으로 爲民政策의 不在를 초래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農業, 商工業, 身分制度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농업의 경우 移秧法, 畝種法, 水田二毛作 등 보다 발전된 농업기술의 보급에 따라 일인당 경작능력이 확대되고 노동력을 적게 들고고도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의 이면에서는 소수 經營型 富農의 登場, 無土不農之民과 流民의 發生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소수 경영형 부농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은 無土不農之民들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고용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다수의 流民들이 明火賊이나 舍堂牌, 山臺黨, 香徒契, 有髮僧, 傀偏牌 등으로 탈바꿈하거나 생업수단을 찾아 타도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都會地로 유입되어 도시의 양적인 팽창만을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부작용적 성격의 여러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방직슈령들은 지물을 탐하고 직성을 도라보지 아니홀에 창심이 슈화 중에 빠져 어이 홀 줄을 아지 못하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내 맛당허 수방에 두루 놀아 뜻이 잇는 남9를 사피고 의괴잇는 사를 몰도아 삼척검을 집고 넘어나 쵸명의 간당을 쇼멸하고 도탄에 든 직성을 건지리라”

7) 일례로 18세기 초 경상도와 충청도의 無田農民만도 그 수가 각각 5만, 10만 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金容燮, 「農業生産力の 發展」, 「朝鮮後期農業史研究」(一潮閣, 1971), pp.2~132.).

8) 鄭奭鍾, 「洪景來의 亂」,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풀빛, 1981), pp.291~292.

9) 『洪景來實記』(上), p.3.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감득하고서도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홍경래는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패가 만연한 지배층, 즉 탐관오리에 대해 항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의식이 그가 가출하여 의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 조정에서 용인함에 있어 재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黃海·平安·威鏡道 출신이라 하여 地域의인 差別을 두는 不合理性을 打破하고, 여기에 희생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도 어느 정도 엿보인다.

우리 조선의 용인하는 법도 | 엇더케 편벽하고 괴악한 것을 보건대 경향을 분별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사들은 문무과에 오르면 간신히 옥당과 선전관을 하는 자이 그 몇몇치며 지어 황히 평안 함경 삼도 사들은 문불과지 평강평이오 무불과슈문지장이라 비록 평오울과소와 울지문덕 강감찬이며 최치원 김심과 홍길동 먼우치 고훈 장양지지와 문장필법과 신술이법이 잇슬 지라도 쓸 곳이 바이 업스니 엇지 원억치 아니하리오¹⁰⁾

여기에 조선국 창건 이래로 쌓여 온 不合理한 身分制度의 撤廢를 위한 동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름이 성명을 하눌의 바즈음은 한가지어늘 세상에 썩러지면서 반상의 문벌이 잇기도 이미 리치가” 아닌데도 서자라 하여 벼슬을 못하고 상놈이라 하여, 상전에 얽매이는 잘못된 신분제도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더구나 인재를 등용함이나 벼슬을 제수함에 있어서까지 지역적인 차별까지 행하였으니 홍경래의 울분은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결국 홍경래가 朝鮮社會와 封建制度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홍경래의 가출 동기는 漢文短篇 「洪景來傳」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니, 본고에서 텍스트로 설정한 「洪景來實記」보다도 더 구체

10) 「洪景來實記」(上), pp.2~3.

적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당시 국정이 부패하고 기강이 문란하였으며, 온나라가 黨爭에 몰두해서 참소·모략·중상·아첨·비굴을 일삼고 염치를 잃고 공평한 의론이 전혀 없었다. 양반들은 黜陟한 세속에 휩쓸려 아주 선비의 정다운 기풍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의 기틀과 정권이 모두 戚族의 농단에 들어가서 賄賂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사사로이 농간을 부려 거리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등용하는데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고 또 지방 차별을 하여, 참으로 양반집 자제·畿湖 지방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재질이 우수하더라도 전혀 출세할 가망이 없었다. ……경래도 司馬試에 응시하였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했다. 당일 이름을 들친 자들을 알아보니 모두 귀족의 자제들이었다. 이에 그는 성난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하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이 다만 쓴 웃음을 짓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제 자포자기할 수도 없었거니와, 어찌 서울 양반집에 아첨하여 주선해 주기를 구할 것인가. 감히 윗사람에 대항하면서 세상을 개혁할 마음을 품은 것이 대개 이때부터라 한다.¹¹⁾

「洪景來實記」에서 간단히 처리해 버리고 있는 의적 활동의 배경에 대해 「洪景來傳」에서는 홍경래의 體驗談 性格의 一話로 변형시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조선사회 일반의 부패상을 서술한 다음, 홍경래가 司馬試에 응시하여 출중한 실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자제들만 급제시켰음을 알고 개혁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난의 동기를 현실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辛未錄」에서는 이들 「洪景來傳」, 「洪景來實記」와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홍경래를 반역을 꿈꾸는 적당의 괴수로 평가하면서 의적 활동 자체를 天威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황여우민이 성명호신 덕택을 아지 못하고 외람이 편위를 거스리니 엇지
촉흡지 아니리오¹²⁾

- 11) 李佑成·林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下)(一潮閣, 1978), pp.121~123.
12) 金東旭 編, 「辛未錄」,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3), p.1. (이하 「辛未錄」이라 줄임)

어리석은 백성이 임금의 두터운 덕택을 거슬러 난을 일으켰음을 '츠흘'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즉, 무리배를 모으기를 일삼고 죄역한 말로 소일하던 홍경래등이 흉년을 만나 유망하는 백성이 있음을 이용해서 난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이는 「辛未錄」이 철저히 조정과 관군의 입장에서 난을 이해·서술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辛未錄」에서의 否定化¹³⁾에도 불구하고, 홍경래의 가출 동기는 부정적 경향 보다는 腐敗한 社會構造에 대한 反抗으로 대표되는 肯定的 性格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개인의 출장인상을 위한 私的 動因과 아울러 당시 황해·평안도 지방에 대해 지역적인 차별을 행하는 사회구조를 시정하려는 枝葉的 動因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다 주된 동기는 세도정치와 국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일신 영화에만 급급해 하는 支配層에 대한 反抗, 그리고 이러한 부패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封建制度 自體에 대한 鬭爭意識에서 비롯된 對社會的 動因, 즉 社會에 대한 自我로서의 公的인 問題認識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2. 社會的 自我로서의 持續的 鬭爭

홍경래는 가출 이후 본격적인 거사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平安道 各邑을 돌아다니며 동지들을 규합하고, 이를 발판으로 그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인물들은 禹君則, 李希著, 李濟初,

13) 金東協은 「辛未錄」을 대상으로 亂의 背景, 進行過程, 定州城 攻防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이 가지는 反民衆性, 反歷史性에 대한 논의를 펴고 있다. 그 결과 「辛未錄」이 봉건사회 지배층의 독선적 사고경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民衆의 人間的·社會的·歷史的 眞實의 提示를 拒逆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신미록〉의 작자의식, 「문학과 언어」 4(문학과 언어연구회, 1983)).

14)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金東東 譯)(「創作과 批評」10호, 창작과 비평사, 1968 여름), pp.342~343 참조.

金士容 등인데, 이들은 모두 李忠武, 金德齡, 鄭起龍 등의 영웅들에 비견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홍경래의 세력 속에는 前·現職 수령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¹⁵⁾ 이들 또한 모두 당시 조선사회와 조정의 잘못된 정치상황과 부패상을 깨닫고 이를 개혁하려는 의식을 가졌던 인물들로 평가된다.

평안도 한 고을 수령이 한 꿈을 얻으니 일위 백발노옹이 왈……모일모시에 한 소년이 복건청포에 라귀를 토고 너를 차자를 것이니 이 사름은 면명을 밧주와 만인을 건질 자이니……기일에 일위 소년이 그 로옹의 말과 궤치……아문에 니르러 보기를 청하거늘……인하야 대수를 흠피 도모하물 말하고 리해화복을 배풀어 톱반으로 달래이니 그 수령이 이에 허락함이 잇섯고 경성 경지들도 이쳐로 후하야 너옹이 된 자 | 또한 만타하더라¹⁶⁾

한 수령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모일에 찾아오는 소년의 말을 좇아 함께 난에 가담하기를 충고하고 사라진다. 이와 같은 꿈 모티프는 고소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고소설에서의 꿈 모티프는 대부분 英雄的 人物의 誕生 豫見, 작품 전체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伏線 구실, 외부상황에 의해 억압된 소망을 꿈이라는 변형된 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주는 기능¹⁷⁾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洪吉童傳』, 『春香傳』, 『沈清傳』 등 고소설, 특히 英雄系 小說이나 說話에 나타난 꿈 모티프들은 작품 구조 속에서 대부분 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의 발생과 진행이 하늘의 啓示, 즉 天命에 의

15) '洪景來亂' 당시 중심을 이루었던 인물들의 명단은 漢文短篇 『洪景來』와 亂의 상황을 서술한 『西征日記』, 『陣中日記』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李佑成·林煥澤 譯編, 『洪景來』, 前掲書, pp.128~131.

鶴園 裕,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 - 그 重層的 性格을 中心으로』,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上)(풀빛, 1981)

鄭寅鐘, 앞의 논문 등을 참고할 것.

16) 『洪景來實記』(上), pp.6~7.

17) 李憲洪, 『영웅계 소설의 꿈』, 『문학과 비평』 6(문학과 비평사, 1988 여름) pp.298~299.

한 것임을 지시해주기도 한다. 위 「洪景來實記」에서의 꿈 모티프가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경성의 경제들까지도 홍경래의 세력 속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洪景來實記」에서의 의적활동이 「洪吉童傳」이나 「田禹治傳」 등 동계 의적 소설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洪吉童傳」에서의 활동 중심세력은 활빈당 도적떼 등과 같이 일부 계층에 의한 집단적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洪吉童 個人中心이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田禹治傳」에서는 「洪吉童傳」과 같은 미약한 집단성조차 띄지 못하고 田禹治 個人的 活動만이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반해 「洪景來實記」에서의 세력 성향은 위에서 살핀 바처럼 양반·천민 등 다수의 계층이 망라된 重層的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洪景來實記」에 나타난 의적활동 세력의 重層的 性格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군축이 아관박대에 일개 서동을 두리고 힘ᄃ야 평안 황희 량도로 둔니며
지식이 만흔 자를 차자……당류에 참여키를 허락함애 이처로 계교를 힘ᄃ
야 여러 사름을 모으고 직물을 만히 엮은지라¹⁸⁾

수일이 못ᄃ야 루익어명 사름이 니르러 본즉 은덩은 아니오 이에 대스물
경영ᄃ는 처소이라¹⁹⁾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洪景來의 亂” 당시 주류층은 어느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지식이 만흔 자’나 ‘대스물 경영ᄃ는 처소’ 등 당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계층까지 의적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경래는 經營型 富農, 鄉吏·鄉任·鄉武層, 沒落兩班層 등 상당수의 계층에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난은 평안도의 천민·양민까지 포함된²⁰⁾ 實質的인 民衆의 革命이었음을 알 수

18) 「洪景來實記」(上), pp.4~5.

19) 「洪景來實記」(上) p.19.

20) 鶴園 裕, 앞의 논문, p.280. 이와 같은 사실은 ‘홍경래의 난’ 당시의 사정울

있다.

이 세는 신미년이라 청북이 흉년을 당하여 백성이 수척로 리산하느니라
경리등이 가산 우복동에서 그 도당으로 더브러 군기를 문들며 진법을 연습
하더니 일일은 리회져 | 우군측드려왈 우리 대수를 도모한지 오래더니 이
제 청북이 지년을 만나 인심이 대변한지라 이제를 특 묘계를 생각하라 군측
왈 이제 백성이 곡갈을 견디지 못하여 나라를 원망하며 관리를 생각하여 산
망하느면 자 | 만흔지라²¹⁾

홍경래등은 우복동에 은거하며 세력을 확산하고, 군기를 만들거나 진법을 연습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청북이 흉년과 재난이 겹쳐 인심이 흉흉한 틈을 타 조선의 봉건제도에 대한 의적 활동을 전개한다. 홍경래 스스로 平西大元帥가 되고, 金士用을 副元帥로, 禹君則과 金昌始를 謀士로, 洪總角을 先鋒으로, 李濟初를 後軍將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洪景來實記」가 전대 의적소설과 구별되는 또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본 작품에서 의적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의 原動力이 一個人이 아닌 民衆의 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힘 역시 매우 現實性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洪吉童傳」에서의 힘의 성격은 비록 活貧黨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중요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洪吉童 개인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으며, 도술성·환상성 등의 非現實的 要素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더욱이 「田禹治傳」의 경우는 田禹治 개인의 道術的 能力에만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洪景來實記」는 홍경래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 즉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홍경래의 힘은 민중의 힘 속에 용해되어 矮小化되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본 작품이 前代 古小說의 浪漫性을 극복하고 보다 事實的 社會小說로 나아갔음²²⁾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기록한 「辛未西賊日記」(京都大學河合文庫本)나 「陣中日記」(國史編纂委員會本), 「關西平亂錄」 등을 살펴볼 때도 확연히 드러난다.

21) 「洪景來實記」(上), p.7~8.

22) Georg Lukacs, *The historical novel*(이영옥 譯, 거름, 1987), pp.13~15.

있다.

거사 후 홍경래의 세력은 파죽지세를 몰아 嘉山, 郭山, 泰川, 宜川을 평정하여 "군기를 거두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며 무리를 모도"아 곧바로 경성으로 진군할 준비를 갖춘다. 이어 定州, 鐵山, 博川, 龍骨山城, 龍川, 安州城 등을 함락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다. 여기에서 관군의 횡포와 무차별 살륙, 이에 대조적인 홍군의 위민정책 등은 민중들의 마음을 홍군쪽에 기울게 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홍경래의 의적활동에 호응하여 참여하게 된다.

이제 병영 우후리히승이 재읍병의 홍군을 파함을 인하여 뒤를 조차 지내
논 곳마다 불을 노획에 백성의 남너로쇼 | 불에 툄 죽은 자 | 불가승수
|오 촌중을 로략함이 심하야……히승이 백성을 죽이며 로략함이 심함으
로 가산과 박천의 인민이 모다 선동하야 홍군을 조침이 심도인 줄 알고 그
두를 조차 덩유성으로 드러가 죽기로써 관군을 막으니 이는 히승의 죄 크더
라²³⁾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李海昇은 당시 홍군을 토벌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된 관군 장수 중 한 사람이다. 李海昇이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 재물을 노략까지 하므로 관군측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군의 잔악한 모습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시 지배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관군측이 민중들에게 행한 여러 잔혹상으로 말미암아 홍군은 상대적으로 양·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처럼 의기양양하던 홍군에게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다. 安州城 공략 전날 큰비가 와 청천강에 굳게 얼었던 얼음이 갑자기 풀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를 두고 『洪景來傳』에는 안주성 공략을 앞두고 홍군의 지도층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간에 홍군은 급기야 安州城 공략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서부터 각처에서 물려든 관군의 거센 저항

23) 『洪景來實記』(上), p.26.

을 받게 된다. 더군다나 몇 군데서의 교전이 관군측의 승리로 돌아감에 따라 홍군은 嘉山·博川 등지를 버리고 정주성으로 들어가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

관군은 잃었던 성을 하나하나 복원하고 마침내 홍군을 定州城에 고립시키는데 성공한다. 이후 관군은 수세에 몰린 홍군을 토벌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정주성 공략을 시도하였으나 홍군의 거센 저항을 받고 큰 상처만 남기고 패퇴하여 돌아갔다.

이처럼 수세에 몰린 홍군이 오랫동안 관군과 대치하며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민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과 적대적인 사이에 있는 관군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정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옥중에 잡혀 있던 백성들은 방송하여 주는 등 행여 의적활동의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군율을 엄정히 다스렸던 것이다.

홍경래군이 博川을 습격할 때 郡守 任聖舉와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이들의 의적다운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군측이 말녀 왈 이 사동(任聖舉, 筆者註)의 충절이 늙호니 죽이지 말고 기유하야 항복밧음이 울홀가 호노이다 호니……좌우로 호여곰 성고의 민것을 굴으고 마자 좌에 안게 호고 도호 말로 달래여 왈……성고! 이 말을 뜻고……종시 굴치 아니호대 홍군이 성고의 직성을 다스림에 은혜로운 경스 잇슴으로 혜치 아니코 관속의 집에 보슈호니라²⁴⁾

홍경래가 처음에는 任聖舉를 죽이려고 하다가 禹君則의 만류로 회유코자 하였으나 끝까지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홍경래는 任聖舉가 博川을 다스림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바가 큰 것을 인정하여 죽이지 않고 관속의 집에 가두어 두기만 했다.

더욱이, 漢文短篇 「洪景來傳」에서는 규율을 어긴 부하들을 처형했다는 대목도 보인다.

24) 『洪景來實記』(上), pp.14~15.

(홍경래가) 각 군에 명령을 내려……군사들에 엄히 주의시켜 규율을 준수케 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추호라도 범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경내를 깨끗이 하는 일에 힘쓰도록 했던 것이다. 본인의 장졸 가운데 규칙을 범한 자 두세 명을 노변에서 효수하고 각 방면에 전령해서 방을 붙여 기율을 엄숙히 했다.²⁵⁾

이처럼 군율을 엄격히 단속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진휼하였기 때문에 민심은 그들 반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행동 성향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비록 홍경래의 의적활동에 찬동하였지만 소극적인 민중들은 거사에 대해 심정적으로 찬사를 보내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등의 제한적 활동을 벌이는데 불과했다. 반면에 적극적 성향의 민중들은 그에게 달려와 복종하고 직접 그의 편에 서서 부패한 관과의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洪景來의 義賊活動은 그 과정에서 내세웠던 군율과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對社會的 動機에서 출발한 홍경래가 일관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腐敗된 社會와 의 持續的 鬭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3. 社會的 自我의 慾望 挫折

앞 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세에 몰린 홍경래군은 정주성에 들어가 장기적인 항전 준비와 함께 원군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리던 원군은 오지 않았다. 도중에 여러 차례 관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관군은 많은 손실만 입은 채 물러간다. 이에 관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주성을 폭파시킬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25) 李佑成·林燮澤 譯編, 前掲書, p.138.

화약 일천칠 킷근을 싸코 약선을 그 좌우에 두루 서려 노코 약선의 한삿
을 토혈 밧그로 나오게 하고 대통으로 약선을 련하고 그 삿에 화승을 달고
……화승에 불을 다히게 하고 손태영이 운민동으로 더브러 한 상을 터야
슈저를 들어 밥을 먹을 즈음에 디진하는 소리 미미히 니르러 맞치 좌하에
서 바람이 나는 것과 같고 성을 바라보니 홍군이 그과 복을 만히 모호고 군
스 | 복장터 우해 밀집드러 서듯하고 허늘을 흔드는 소리촉촉 움직이며 약
력이 터져 나오며 복장터 전후 일진에 검은 안기 증현해야 니러나거늘 손태
영이 밧쳐 밥상을 거두치지 못하고 급히 성하에 나아가니 늑흔 성이 임의
평디되고……²⁶⁾

결국 정주성 밑에 토굴을 파서 이천여근의 화약을 매설하고 사월 십구일 새
벽에 폭발시켜서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갔다. 정주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
공한 관군은 닥치는 대로 성내의 홍군 및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다.

홍군은 다 사로잡히엿스며 죽음이 들에 깔니고 녀주는 모다 성에 나와
걸을 셔 서서 멀며 목숨을 걸하더라 이색에 복장터를 방어하던 홍군 스늑은
삼시간에 화약이 터지닌 터 다 죽고 선봉장 홍총각과 부원슈 양시위와 명주
목스 김리대와 가산군슈 윤원섭은 다 심금하엿고 회천의병 함의행이 리회저
의 머리를 버히고 줄도를 사로잡은 것이 일천구 킷구십륙명이오 또 남녀를
싱금한 것이 구 킷팔십칠명이니 합야 남녀 | 이천구 킷팔십삼명이라 순무
중군이 포로들 각진에 분비야 당일에 효슈홀시 십세 이상을 다 버히라 하
더니 저역체에 다시 십오세 이상을 다 버히라 분부야 이에 일천구 킷십칠
명은 다 버히니 이는 경리의 친귀군과 장초관과 총슈 | 오 남주 십세 이하
이 킷이십스명은 다 노하 보내고 녀주 팔십스십이명은 진문밧게 모다 세우고
손태영으로 하여곰 낫낫히 무른 후 다 방송하다²⁷⁾

먼저 洪總角, 楊時緯, 金履大, 尹元涉, 李希著 등 지도부들 생포하거나 죽
였으며, 또 생포한 이천구백팔십삼명 중 십오세 이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26) 『洪景來實記』(下), pp.58~59.

27) 『洪景來實記』(下), pp.61~62.

목을 베어 버렸다. 이로써 홍경래 등의 의적 활동은 완전히 진압되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洪景來의 最後에 대해서는 각 異本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거야(임신년 4월 18일 밤, 필자 주)에 홍경래는 서장터에 있고 우군측은 북장터에 있더니 다 도망하야 잡지 못하고 이십이일에 귀성우장령 방슈장경 몽랑이 덕장우룡문과 최니훈과 최니언과 최경우와 김리구를 잡아 이십이일에 귀성부스조은석이 대진에 보내엇거늘²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洪景來實記』에서는 비록 의적 활동이 실패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장수 및 반군들이 잡혀 처형을 당했지만, 홍경래는 죽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辛未錄』에서는 홍경래가 定州山城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셔 경너 형세 위급하야 도망하려 하더니 옥지혁이 갈 길을 막고 한 창으로 경너를 지르니 경너 바르게 쏘러지드라 옥지혁이 그 머리를 버혀 들고 순무영의 빗치니 순무중군이 더회하야 머리를 함의 담아 경수로 보너니라²⁹⁾

홍경래가 도망하려다가 옥재혁의 칼에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洪景來傳』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총탄을 맞고 신음중인 것을 관군들이 몰려들어 난도질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洪景來傳』에는 그 뒤에 “이는 관군측의 기록이고 정주의 야담에는 경래가 성벽이 무너질 때 몸을 날려 성을 넘어서 먼곳으로 달아났으며, 그날 살해된 것은 가짜 홍경래라고 한다.”는 기록³⁰⁾을 덧붙여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중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본들마다 홍경래의 최후에 관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작가

28) 『洪景來實記』(下), p.62.

29) 『辛未錄』, pp.103~104.

30) 李佑成·林煥澤 譯編, 前掲書, p.160.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洪景來傳」이나 「洪景來實記」의 경우는 홍경래의 의적활동을 비교적 肯定的 視覺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홍경래를 죽이지 않고 망명도생시켜 끝까지 봉건제도에 반항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면에 「辛未錄」은 철저한 官의 立場에서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홍경래가 처참히 살해된 것으로 결말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경래의 의적 활동은 처음부터 좌절할 운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재를 실제 역사에서 취한 이유도 있겠지만, 洪吉童이나 田禹治와는 달리 현실적인 힘을 소유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초기에 것처럼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였고, 정주성에서 4개월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홍경래가 당시 민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증거로 풀이된다.

봉건사회의 수많은 모순 속에서 억눌려 지내야 했던 민중들의 의식은 그 代理的 補償 欲求의 소산으로 결국 홍경래와 같은 反抗의 人物의 出現을 가져왔다. 홍경래는 바로 이러한 민중들의 의식을 대변하면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꿈꾸었으나, 현실적인 한계성 때문에 중국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民衆의 贖罪羊이었다.³¹⁾ 그러나, 실제 역사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은 홍경래를 망명도생시켜 그로 하여금 조선의 봉건제도에 대해 끝까지 항거하게 하는 永遠한 平行線의 構造를 취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불복심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또한 「洪景來實記」에서의 이러한 悲劇的 結末構造는 홍경래의 '義賊性'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문학사의 맥락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한국 고소설의 흐름이 단순한 사실의 재현 차원을 넘어서 歷史的 事實의 再解釋과 再構의 段階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³²⁾ 보여주는

31) 黃滄江, 「韓國 古典小說과 義賊 모티프」, 「文學과 批評」 通卷2號(문학과 비평사, 1987), p.185.

32) 黃滄江 教授에 따르면, 歷史小說은 史實 自體에 대한 考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歷史에 대한 作家 나름대로의 認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洪景來實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漢文小說〈洪景來傳〉研究」, 「東洋學」 18輯(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8), pp.111~112.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IV. 作品의 意義와 限界

문학은 근본적으로 創作者(作家)－作品－受容者(讀者)의 관계에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³³⁾ 이러한 의미에서 소설 속에서의 인물의 형상화나 작품의 주제는 당대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되게 마련이다.

『洪景來實記』에서 주인공 홍경래의 투쟁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對社會的 動機에서 출발하여 끝까지 社會와의 對決像이 持續됨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동계 의적소설군으로 분류되는 『洪吉童傳』이나 『田禹治傳』과는 달리 본 작품에서의 투쟁 대상은 일부 부패관료나 탐관오리 등에 국한되지 않고 封建社會 全體, 즉 王權 自體에 대한 否定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³⁴⁾ 『洪景來實記』의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古小說이 서두 부분에서는 일종의 혁명의식, 또는 제도에 대한 반항의식을 드러내는 듯하나, 중국에 가서는 기성적 체제제의 수락에 도달하고 마는 경향이 짙은 것과 비교할 때 가히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洪景來實記』에서 이전의 고소설과는 달리 사회와의 대결상이 위에

33) 車鳳禧 編著, 『受容美學』(文學과 知性社, 1985), p.28.

34) 義賊은 오히려 王을 正義의 源泉으로 삼는다. 그들에게 있어 왕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妥協과 和解의 對象인 것이다(E.J.Hobsbawm, 『義賊의 社會史』(黃義坊 譯, 한길사, 1978), pp.45~69. 참조). 비록 洪吉童과 田禹治가 여러 사건에서 왕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洪吉童은 스스로 병조판서를 요구하여 제수받았고, 田禹治 또한 말직이나마 선전관 벼슬을 제수받고 왕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정의 내지는 넓은 관습, 즉 억압된 사회 내에서 공정한 취급의 확립 또는 재확립이었다. 하지만, 洪景來에 와서는 義賊活動이 순수 農業社會의 그것과는 달리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을 통해 民衆에 의한 反封建의 社會革命的 性格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서 보아온 바처럼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당대 민중(독자)들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병양란 이후 17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전통적인 농업구조의 붕괴와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은 조선 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왔다. 農業技術의 發展과 經營型 富農의 등장으로, 상당수의 貧農·無土之民들이 토지로부터 축출되어 광공업, 상업에 종사하거나 서울 등 도시로 과잉 유입되었던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던 것이 18~19세기에 이르면 한층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이전보다도 더 혹독한 국가권력이나 지주층의 수탈이 자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대량의 流民發生, 廣範圍한 浮游 階層의 出現, 明火賊의 發生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의 혼란상이 더욱 가중된다.³⁵⁾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민중들은 자기 각성과 인간성 회복에의 눈을 뜨게 되었고, 여기에다 17세기 이후로 끊임없이 나타난 노비들의 신분해방투쟁, 서얼들의 자기 인식 등 지배층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의식은 한층 성장하였다.

이처럼 사회가 불안정할 때일수록 民衆들은 英雄의 出現을 期待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당대 민중들이 조선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의 욕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미약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說話나 小說 작품에 등장하는 英雄이나 義賊과 같은 代理的 投射物³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식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영웅 기대 심리와 맞물리면서 「洪吉童傳」, 「田禹治傳」 등과 같은 일련의 義賊小說群이 탄생되었으며, 「洪景來實記」에 와서는 전술한 바처럼 사회와의 심각한 대결을 다루는 양상으로까지 변모하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특히 두드러졌던 義賊 集團의 出現³⁷⁾은 이를 뒷받침하

35) 裴亢燮, 「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6), pp.4~16.

36) Boring Langfeld & Weld, *Foundation of Psychology*, New York, 1948, p.518.

37) 朝鮮社會에서 義賊은 15세기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후기로 접어들수록 점차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수적으로도 상당한 지경에 이르게 되

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비단 小說뿐만이 아니라 漢文 短篇이나 說話, 歌辭 등 서사문학의 전영역에 걸쳐 고루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작업은 서사 문학의 발생단계에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초기에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처럼 어떤 커다란 기술물 속의 단편적인 기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傳」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문학 양식으로 서의 자리매김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더욱 두드러져 거개의 고소설 제명에 「○○○傳」이라고 붙일 정도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단순히 「사람에 의한 사람의 일생 그리기」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인공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영웅적 형상화,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도술적인 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일부 「○○○傳」, 「○○○錄」, 「○○○實記」로 명명된 작품들에서는 이것이 사실의 기록인지 소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학적 기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에 표현된 내용은 작가 나름의 관점을 통해서 재구된 것이라야 한다.³⁸⁾ 또한 서술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한 리얼리즘적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럴 때 비로소 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내면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며, 독자들도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洪景來實記」의 사정은 어떠한가. 「洪景來實記」가 1811~1812년間に 일어났던 '洪景來의 亂'을 소재로 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경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서나 서사물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홍경래와 그가 난을 일으키게 된 목적을 "넓은 뜻 깊은 외와 큰 손 굽은 주먹으로 만인이 바라는 바를

었다. 洪吉同, 林巨正, 張吉山, 一枝梅, 金檀, 朴英弼, 朴長脚, 李京來 등은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朝鮮時代의 代表的인 義賊들이다(金奩培, 앞의 논문 참조).

38) Demian Grant, *Realism* (金鍾云 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p.21.

죽고 만인이 능히 못하는 바를 손대어 수천년 적막을 깨터릴 양으로 오백년
 참았던 소리를 지르고 일세계 간간을 구원할 양으로 삼천리 발뚨부터 흔들려³⁹⁾
 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난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그가 다만 시세를 만나지 못하였고 시세를 만들기엔 힘들임이 좀 부족하고
 시세를 기다림에 성미가 좀 조급한⁴⁰⁾” 때문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어 본
 작품의 創作 動機에 대해서도 우연히 ‘洪景來 亂’의 전말을 기록한 것을 보았
 으나 흥경래를 욕되게 하는 구절이 많아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와 함께
 흥경래의 절당한 인물과 탁월한 사업은 반드시 문장으로써 후세에 전하여야
 할 것이기에 찬술하게 되었다⁴¹⁾”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작가는 서술면에 있어서도 철저한 事實主
 義的 視覺에서 작품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洪吉童傳』이나 『田禹治
 傳』과 같은 전대의 의적소설에서 보이는 도술적·환상적·비현실적 장면이
 현저히 제거되고 인물이나 사건 묘사에 있어서 매우 現實的이고 事實的인 立
 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洪吉童이나 田禹治 등이 호풍환우하는 도술적
 인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 결정적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도 이 힘을 통해서 이
 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洪景來의 경우 비록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기는 하
 지만 전자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무궁한 힘이 아닌 現實的이고 限界的인 힘을 지
 닌 인물이며 사건의 진행과정 또한 철저히 사실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만 보더
 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와같은 힘의 현실성·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정주성에서의 전투가 패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작가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흥경래의 욕망이 좌
 결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洪景來實記』는 인물의 형상화면에서도 전대의 소설과 뚜렷
 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설에서 사건의 전개는 주인공 일개
 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전개되고, 다른 인물들은 주인공의 성격이나 도덕성,

39) 『洪景來實記』(序), pp.3~4.

40) 『洪景來實記』(序), p.5.

41) 『洪景來實記』(序), pp.8~9.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원된 부차적 인물, 그것도 어느 한 군데 나사가 풀린 듯한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소설로 내려올수록 서술의 초점은 주인공 일개인이 아닌 폭 넓은 인물쪽으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이며, 助演人物 역시 작품의 중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오히려 왜소화되는 느낌마저 들게 될 정도이다.

『洪景來實記』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작품의 서두에서 홍경래의 인물상을 서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술의 초점은 시종 李濟初, 洪總角, 禹君則, 李禧著, 金士用 등과 같은 인물들에 주어져 있으며, 홍경래는 이러한 人物群을 統御하고 補助해 주는 役割을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洪景來實記』는 당대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현실인식 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며, 한국소설사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歷史小說이 발생되는 기틀을 마련해 준 작품으로 평가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은 「序」에서 밝혔던 작자 의식과는 달리 서두 부분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상당히 작가 의식이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²⁾ 초반부에서는 홍경래를 '百代英雄'으로, 그가 일으킨 난을 '民衆의 義로운 蜂起'로, 그의 군사를 '洪軍'으로 묘사하는 등등의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홍군에 대해 '賊黨' 등과 같은 전혀 상반된 용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파견된 군사를 '義兵'으로까지 평가하고, 전투 장면을 시종 관군측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같은 괴리성때문에 작품의 일관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본 작품의 한계성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작품의 모본이 난 당시 관군을 따라갔던 사람의 기록이었다는 작가 자신의 고백을 볼 때 일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작가의 상상력이 전혀 배제된 채 관군측 기록만을 중심으로 直寫의인 立場을 택하면서 작품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본 작품의 커다란 한계라 아니할 수 없다.

42) 黃潤江, 「한문소설 〈홍경래전〉 연구」, p.114.

IV. 結 論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대결상을 기본구조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고소설은 많은 독자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며, 발생초기 이래 수없이 제기되었던 小說否定論과 無用論 속에서도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소재를 실제 역사에서 취했던 작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 대결상은 중국에 가서는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영원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끝나는 평행선적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洪吉童傳」, 「田禹治傳」, 「洪景來實記」 등의 의적소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朝鮮後期 特權層의 農場擴大와 富의 偏重化, 身分的 差別 등에 따른 政治·經濟的 不平等에 抗拒하였고 그 양상이 封建社會 自體에 대한 否定으로 까지 나아갔던 '洪景來의 亂'을 소재로 취한 「洪景來實記」을 대상으로 하여 朝鮮朝 義賊小說의 한 단면과 아울러 본 작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洪景來實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자 나름의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전의 고소설에서 흔히 보였던 도술성, 환상성과 같은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현저히 제거되고 매우 事實主義的인 視覺에서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갈수록 초반부에서 보였던 作品의 一貫性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었으며, 서술기법에 있어서도 直寫主義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洪景來實記」는 朝鮮朝의 浪漫的 歷史·社會小說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보다 事實的인 社會小說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文學史的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 金東協, 「〈신미록〉의 작자의식」, 「文學과 言語」 4, 文學과 言語研究會, 1983.
-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1971.
- 金章東, 「朝鮮朝 歷史小說 研究」, 二友出版社, 1986.
- 林燮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 裴亢燮, 「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 高麗大學校 碩士論文, 1986.
- 李文奎, 許筠 散文文學研究, 三知院, 1986.
- 李佑成·林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下), 一潮閣, 1978.
- 李憲洪, 「영웅계 소설의 꿈」, 「문학과 비평」 6, 문학과 비평사, 1988 여름.
-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變動 研究」, 一潮閣, 1984.
- 鄭奭鍾, 「洪景來의 亂」,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풀빛, 1981.
- 車鳳禧 編著, 「受容美學」, 文學과 知性社, 1985.
- 韓國古小說研究會 編, 韓國古小說論, 亞細亞文化社, 1991.
- 黃涓江, 「韓國 古典小說과 義賊 모티프」, 「文學과 批評」通卷2號, 1987.
- 黃涓江, 한문소설 〈홍경래전〉 연구, 「東洋學」18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 所, 1988.
- 鶴園裕,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그 重層的 性格을 中心으로」, 「傳統時 代의 民衆運動」(上), 풀빛, 1981.
- Demian Grant, *Realism* (金鍾云 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 E.J.Hobsbawm, 「義賊의 社會史」(黃義坊 譯), 한길사, 1978.
-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이영옥 譯), 거름, 1987.